

서소문 밖

김태인 (2013년 제9회 5·18문학상 수상작)

진실

을 알게 되겠지만 지금 광주에선..
80년 오월 아침, 초등 1학년 교실에서 꺼내진 이야기다
광주민주화운동임을 깨닫기까지
꽤 오랜 시일이 걸렸다

서소문 밖

공원을 거닌다, 이교(이橋)
흙다리 아래 백사장, 형장의 이슬을 딛고 선 노송군락
맑은 빗물 흐르던 만초천은 혈맥이 막힌지 오래
순교의 피, 거룩한 믿음의 증거를 수혈하는 헌양탑 홀로 섰다

순교자

가 아닐까, 탑에 걸린 얼굴들처럼
누구든 자신의 믿음에 목을 걸 수 있다면
청명을 고집하여 살점 뜯겨진 하늘귀도
눈이 파헤쳐진 백사장도 팔다리 처진 소나무도

어머니들

땡구는 목을 품고 각혈했을
얼굴을 주위든 탑신이 젖는다
슬픈 그림자 드리우지 않는 탑, 만초천이 와류하며
출렁이는 거룩한 진실을 빨아올린다

짓밟힌 꽃

은 누군가의 아픈 기억에 책갈피를 꽂아둔다
무릎 헤진 오솔길, 숲 그림자 덧대어 기웠다
나무 그림자 동아줄에 묶인 채 촉수를 뻗는다
피를 먹고 자란 붉은 노송, 잘린 양팔에 울컥 솟은
봄바람이 흐르는 피를 흘날린다
흘날리는 곳마다 어머니 품 같은 탑이 솟았다

복되어라

의로움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탑에 얼굴이 자라고
푸른 나무에 목이 자라고
하얀 달은 하늘귀로 흐르고
오솔길은 탑 안으로 흐르고
밤 비둘기, 동아줄을 풀고 날아오른다

* 마테오 복음 5:6